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
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니..."(요한2서 1:7)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등우체국 1896호

오늘은 추수감사절

일년동안 은혜와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1부~4부 예배시 성찬식 거행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다.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저밭에 농부가
씨뿌려 놓은 후 주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밭
에 내려주니 그 사랑한데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
드리세"의 표현과 같이 일년동안, 몸과 건강
을 주시고, 생업에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
자.

비록 농부처럼 논·밭에서 씨뿌리고 가꾸
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매일
매일 생활에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찬송을
드리고, 풍성한 재물도 아낌없이 바쳐보자.
한편 오늘은 1부~4부 예배시 성찬식도
거행한다.

그리고 추수감사 축하예배는 저녁찬양
예배시 유치부 어린이와 에바다부·사랑부
교회학생들의 감사 찬양과 성경암송, 갖가지
재물등이 있을 예정이다.

김창인 원로 목사

지난 16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

김창인 원로 목사가 71일간의 해외 집회
및 성지순례를 마치고 지난 16일(목) 오후
9시30분 유니타이어드 항공편으로 귀국했
다.

트랩에서 내린 김목사 내외는 건강한 모습
이었으며, 그동안 해외 제류기간 동안 기도해
준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
다.

김목사는 지난 9월6일 출국후 미국등
여러곳에서 해외 집회를 인도했다.

충현복지마을
세계선교훈련원
사랑의 집 건립헌금

1989년 11월 13일 접수분

▲ 임혜경

▲ 윤상언(교회관리과장)·박종화 집사

▲ 김재중·이신애 집사 ▲ 김요한·김은혜

90년도 충현교회요람 편찬

교회는 1990년도에 사용할 충현교회 요람
을 편찬한다.

동 요람에는 표어 및 목표를 비롯하여 1
990년 목회를 위한 기도, 교회연혁, 1990년
목회계획, 당회원 교역자 사진화보, 교회기구
조직표, 교회조직, 그리고 충현교회 회칙
및 사무분장 규정과 역사화보, 제직회원 사진
과 제직회원 주소록이 실릴 예정이다.

편찬은 기획실이 담당하고, 인쇄는 사무
국, 발행 예정일은 오는 12월20일로 잡고
있다.

위원회 지도·교구장·지도교역자 임명
찬양위원회 산하 지휘·반주자 도

교회는 1990년도에 봉사할 각 위원회 지도
와 고문, 그리고 14개 교구 교구장 및 지도교
역자(목사·전도사)를 임명하는 한편 찬양위
원회 산하 각 찬양대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를 배정했다.

▲ 위 원 회

위	원	회	지	도	고	문
1	예	배	위	원	회	김 학 진
2	찬	양	위	원	회	김 동 열
3	교	육	위	원	회	윤 용 규
4	교	구	위	원	회	이 세 열
5	전	도	위	원	회	김 익 경
6						
7	구	체	위	원	회	김 영 구
8	충	현	출	판	국	김 연 이
9	상	담	실	이	두	란
10	성	경	연	구	원	이 조 윤 김철식
11	교	회	성	장	연	구원 이 조 윤 김철식
12	조	기	교	실	장	영 자
13	스	데	반	회	김	성 윤 윤명식
14	권	사	회	최	순	복 이용선

▲ 교 구 위 원 회

교구	교 구 장	목 사	전 도 사
1	최 무 길	윤 용 규	장 영 자
2	김 원 선	김 성 윤	김 주 아
3	노 광 현	김 학 진	구 명 신
4	오 진 국	최 인 근	임 태 주
5	김 광 남	김 창 수	정 복 인
6	강 순 용	김 해 규	김 정 순
7	이 훈	이 세 열	유 순 화
8	박 철 훈	김 영 구	김 경 성
9	박 영 식	송 태 근	정 연 회
10	이 병 학	김 은 태	김 정 자
11	문 홍 구	김 동 열	최 명 자
12	김 제 명	신 표 근	최 순 복
13	이 창 호	김 광 석	장 해 순
14	마 성 락	김 익 경	현 정 남

▲ 찬 양 위 원 회

부	서	대	장	지	휘	반	주
가	브	리	엘	이	종	석	최광덕
임	마	누	엘	이	창	호	조신옥
시	온	김	천	채	이	수	철
할	렐	루	야	조	인	재	최시원
아	맨	김	종	구	이	관	설
호	산	나	남	수	현	송	숙
실	로	암	이	병	학	김	영
헨	드	벨	정	경	자	이	미
오	케	스트라	조	인	재	최	시
크	로	마	하프	한	영	숙	강

신표근강도사

본교회 교역자로 청빙

교회는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신표근강도사를

본교회 교역자로 청빙했다.

신표근강도사는 제12교구 지도 교역자로
일하게 되신다.

특히 입시철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진학문
제에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모든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지원교회 승인
경기도 안성 산북교회

당회는 전도위원회가 요청한 경기도 안성
군 일죽면 산북리 소재 산북교회(안병삼 강도
사 담임)를 지원 교회로 승인했다.

동교회는 바울4지회가 지원케 된다.

제2교구 직분자들

●일군 신앙훈련가져

제2교구(교구장: 김원선장로, 지도: 김학진
목사)는 지난 10월 31일 일군신앙훈련을
실시했다.

권찰 이상 임직받은 직분자 106명은 제암
리교회를 방문하고, 아산만에서 중국을 바라
보고 특별기도했으며, 도곡에 들려 성도의
교제도 나누었다.



▲문선명 이단사교집단 대속하기 위함의 연합집회가 지난 13일 충현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충현교회 성도여러분 태신자를 잉태하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위원장 윤 종 성 장로

우리 충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대명을 받들어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를, 이종윤 위임목사님께서 선두에 서시고 39명의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시어 이 대회를 기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남녀교역자들이 각기 맡은 교구에서 성도님들과 합심하시어 태신자를 발굴
하게 하시고 또한 각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님들이 각기 맡은 어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정성껏 성심을 다하여 전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대회의 위원
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호 및 노방전도를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남여전도회원, 각 교회학교, 소망부, 영어예배부, 경로대학, 사랑부, 에바다부, 장애자
들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하신 결과로 11월 5일까지 태신자의 집계는 7,089명의 놀라운
많은 신자를 잉태하셨습니다.

전도하신 성도님들의 수고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이 대회에 전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심을 성령님께서 보시고 같이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각자가 전도하여 얻으신 태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며 교제하시며 후임에 사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에서
사는 백성으로 변화되신 거듭난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충현지를 빌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②



본문 / 요 6:52-59

신학교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교회의 특성을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는 중에 교회는 뭘니 뭘니 해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거기에 또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순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는 화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때로는 성결함이 없이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리(성결)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평화나 연합이 없이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연합이나 평화가 없이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평화도 환경의 모든 여건도 같이 따라와 줘야지 오늘이라도 전쟁이나 기근,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진리(성결)가 항상 교회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은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평강이 늘 넘쳐야 되고 분열보다

“주님의 말씀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아야...”

는 연합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광야에서 준 만나와는 다른 생명떡으로 왔다고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나 아니냐 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생명떡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반기를 든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들은 다투므로 교회의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53-58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신 하나의 설교와도 같은 말입니다.

1. 먹고 마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로마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제 기본에 날뛰면서 로마시가를 다시 창건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불을 질렀습니다. 온 시민들이 그 방화범을 잡아야 된다고 덤벼드니까 이 악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 죄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몰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모두가 살인자(흡혈귀)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도 유괴범이 많아서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굴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을 찢은 살이다. 받아 먹어라.’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찬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잘못 알고 “웁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흡혈귀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보고가 되어서 네로 이후 계속되는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각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각도에서 이상 세가지 이유로 엄청난 희생자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다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

운 다툼입니다. 어떻게 살을 먹으란 말인가. 어떻게 피를 마시란 말인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5절). 참된 양식인 참떡을 먹고 참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연관되어 자신을 팔출하실 때에는 꼭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메시아, 구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에이러스트 종(단순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생관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생관색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안 마시고 떡을 안 먹었다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과거형으로 나와 있니까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먹는다, 마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새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성찬식이 제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또 시간적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으로 안 맛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기 보다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중에라도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예식에 참여를 해서 목사님이 나누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지만 그 사람 가운데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먹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54절)

여기 먹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몇가지 말로 표현됩니다. 그냥 먹는다고 할 때는 에제오라는 단어를 쓰지만 54절에서는 트로코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쁨으로 삼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는다, 즐겁게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식품인데 실물 이시고 영원히 살리는 효과가 있는 참된 만나 이신 예수님에게 즐겁게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54절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요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37절에는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와야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to believe), 오는 것(to come),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먹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믿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는 오는 자요 또한 보는 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맛보고 소리는 귀로 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마주보고 앉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45절에 의하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털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동사형으로 나온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 됩니다. 문선명 집단은 사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부하라고 합니다. 약해도 보통 약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보고 오고 믿어야 되는 모두를 합하여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 연합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생명도 영혼도, 현재도 미래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은 했으나 아직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식 선포가 되기 전만해도 파기할 수가 있으나 결혼이 되어서 함께 헌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랑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된 교회가 지금 새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신랑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3. 주님과 연합된 자의 결과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직도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살의 터전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셋째로,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세상 생명이도 풍성해 집니다(57절).

매일매일 주님께 살려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의 연합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없는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새작되고 사랑으로 계속되고 사랑으로 영원해야 됩니다(고후 5:14, 15, 갈2:20).

“문선명집단은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사교집단”

13일, 대학인가 저지를 위한 연합집회서 전국 성도들 규탄

문선명 이단 사교집단 대학인가 저지를 위한 연합집회가 지난 13일(월) 오후7시 충현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연합집회에는 3천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강병훈목사(한국교회 백주년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교회의 세속화를 통회하면서 한국교회가 진리위에 세워지도록 황대식목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이단사교를 물리칠 능력을 구하면서 이단사교가 무너지도록 김충기목사(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가 그리고 민족장래와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문집단 대학인가가 취소되도록 이성택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성경 요한2서 1장 7~11절을 김명혁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가 봉독한 후 충현교회 찬양대의 찬양, 예장(통합) 총회장인 임옥목사가 “미혹하는 자”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문집단의 이단성에 대한 보고를 김명희선생(문선명문제연구소 소장)이 폭로하고 성명서낭독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처장 김경래장로가 맡아 인도했으며, 충현교회 당회장 이종윤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발표된 성명서에 의하면 ① 문선명집단은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사교집단이며, ② 문선명집단은 비윤리적 반사회적 집단이고, 또 ③ 문선명집단의 대학인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세칭 통일교 문선명 집단에 의한 사회 및 가정질서 파탄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바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사회를 좀먹는 사악한 사교를 처벌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집단에게 그들의 그릇된 교리를 전파할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대학인가를 허락한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상실한 잘못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 문선명 집단은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사교 집단이다.

문선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음양의 중화적인 신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가장 기쁜날은 아담이 성관계를 가진 날이었다고 한다. 아담의 결혼식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식이라고 한다. 아담이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하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한다.

문선명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데,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깨끗한 하늘(문선명)의 혈통을 교환(피가름)해야 하고, 참사랑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말씀142호, P22). 이러한 맥락에서 문선명은 모든 여자는 그들의 남편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자들은 모두 내게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말씀142호, P23).

문선명은 또한 「공자, 석가, 예수는 내 부하다」(말씀182호, P29)라고 망언을 했으며

「재력만 있으면 기성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통일교를 믿는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셋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했다(말씀135호, P7)

2. 문선명 집단은 비윤리적 반사회적 집단이다.

문집단은 혈통복귀(피가름)을 통한 세계 종교 창설의 망상을 가지고 있다. 문은 1946년 여성관계 사회혼란죄로 100일간 구속되었으며 기혼자로 1948년 유부녀인 김모 여인과의 불륜관계로 5년형을 받았다. 그후 다시 문은 김모, 최모 여인과 관계를 맺어 아들이 낳았는데 이를 안 그의 부인은 1957년 1월 문과 이혼을 하였고, 그후 문은 1960년 당시 17세의 여고2년생이던 한학자와 재혼했다. 문은 오늘에 와서는 「내가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데 있어서 최고 기록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까지 망언하였다.

문집단은 반사회적 집단이다. 문집단이 운영하는 일화인삼은 1977년 59억원을 탈세하여 간부 5명이 구속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부동산투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1981년 4월 1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배심원 11명 전원의 가결로 「통일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재판비용 9억7천만원에 배상하게 되었다. 또한 문은 1984년 5월 미국에서 탈세죄로 장기간 복역했다. 일본의 경우 합동결혼식으로 말미암아 가정파괴의 경우가 많았고, 가출사건, 학업중단, 기만적 상행위 사건 등으로 인해 1979년 이후 문의 일본입국을 거절하고 있다. 로마 교황청은 1985년 전세계 카톨릭 신도에게 내린 지시문에서 「어떤 경우와 명목으로도 문선명의 통일교와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

3. 문선명 집단의 대학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현정부가 기독교를 사칭한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사교집단에게 신학교(성화신학)의 인가를 내주고 그리고 그것이 요건이 갖추었다고 또 다시 대학(성화대학) 설립의 인가를 내준 것은 일천만 한국 기독교인들의 뜻을 정면 부정하고 사회와 가정질서를 아름답게 지키려는 선량한 사친만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일천만 기독교 신도들의 이름으로 현정부가 문집단에게 허용한 대학설립 인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저지운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정권은 우리 일천만 기독교 신도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문선명씨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라도 허망한 배교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1989년 11월 10일

구역탐방

12교구 AID②구역

•구역탐방

12교구(교구장/ 김제명장로) AID②구역을 소개한다.

지난 11월9일(목) 오후8시30분 구역장 김정희집사댁에는 12교구 지도교역자 김성운목사와 최순복전도사가 참석한 가운데 AID② 구역에 속한 여성도들이 남편과 함께 8가정이 모인 호뜻한 구역예배였다.

이날따라 충현다락방 제45과 「하나님과 의 교제」란 제목의 설교가 김성운목사를 통하여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교훈받았다.

이 구역은 평상시 100% 구역식구들이



▲ AID②구역 구역예배를 마치고

참석하는 모범구역으로서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친정같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구역이다.

어떤 남성도는 매일 새벽6시 직장에 출근하여 밤1시쯤에 퇴근하는 바쁜 생활이었지만, 이날만은 8시30분 퇴근하여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정성을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대개 직장관계로 남편들이 제대로 참석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날은 동구역에 속한 남편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교회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구역으로 인도하고 있는 AID②구역은 성도의 교제가 너무

매주 금요일 구역예배가 기다려지는 모범된 구역 친정가족같은 분위기로 사랑의 교제

벽차 헤어지기 싫은 여운을 남기면서 다음 구역예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귀가하는 아주 열심들이 대단한 믿음의 권속들이었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배 이후의 2부순서의 음식도 각가정에서 제일 잘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손수 해와 함께 모아놓고 부페식으로 나누어 먹으며, 초대교회 성도들

의 ‘처음사랑’을 되새기는 한쪽의 그림같은 앙상블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니오’가 없는 ‘예’의 절대순종을 자랑하는 AID②구역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구역으로 기록하고 싶다.

89년 연말행사 일정

교회는 89년도 연말행사 일정표를 내놓았다. 동 일정표에 의하면, 오는 12월 3일 주일에 제직·권찰 임명이 있고, 12월 10일 주일엔 교사·찬양대원 임명, 12월 17일에는

남여전도회 개편총회, 12월 31일 특별제직회 동일 밤 12시 송구영신예배가 있게 된다. 행사일정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9년도 연말 행사 일정표

구분 월 일	행 사 명	비 고
11.19(주)	추수감사주일, 성례식	
11.20(월)	목회자세미나 종강	본당및지하주차장 오후5:30
11.26(주)	성경연구원 수료	본당 찬양예배시 7시
11.30(목)	정기당회	
12. 3(주)	제직·권찰 임명	
12. 6(수)	수요찬양대 임명	
12. 8(금)	교구총회	
12.10(주)	교사·찬양대원 임명	
12.13(수)	국제합창단성탄축하음악회	용산국제합창단및오케스트라
12.17(주)	남여전도회 개편총회	시간: 오후2시30분 장소: 남전도회·갈릴리홀 여전도회·본당 주관: 교구목사책임하에 교구별로 진행
12.18~23	교회학교, 찬양대 총회	
12.24(주)	성탄축하 음악예배(저녁)	
12.25(월)	성탄축하 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 ·소년부는 9시에 본당 중등부이상 장년은 11시 본당
12.25(월)	성탄축하 음악예배(저녁)	오후7시 유·초·소찬양대특수
12.28(목)	정기 당회	
12.31(주)	특별제직회	4부예배후 P.M 12시 1월1일 신년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
1. 1(월)	송구영신 예배	
1. 7(주)	공동의회	4부예배후

에스더 6지회 전도활동 이모저모

어수덕 (에스더 제6지회 회장)

한걸음 앞서 온 추위 때문인지 올 한해의 흐름은 유난히도 빠른것 같다.

점점 계절은 깊어져 내적인 충족과, 산뜻하고 해맑은 가을의 흔적은 아스팔트 위의 낙엽과 함께

국립의료원에 라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전달

흔적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려 한다.

옷깃을 여미고 정리해야 할 일들을 많이 떠 올리면서 과연 지난 1년간 우리 여전도회가 행한 일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지...

우리 에스더 6지회가 지원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한영성 목사님의 요청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 수술환자를 위한 가재집기 봉사를 우리 6지회 산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므로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6지회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지난 8월 초순에도 강원도 인제의 기린대 교회를 위문 방문케 하시어 좋은 체험과 서로의 친교와 사랑을 돈독케 하였으며, 아울러 10월에도 고궁을 견학케 하시어 주께서 창조하신 고궁 찬란한 옛 조상들의 슬기와 기백을 맛보게 하시고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국립의료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효과의 일환으로 Cassette Radio와 휴대 실에 사용될 Vedio tape를 전달하게 하심으로 또 한번 우리에게 도움의 기회와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원한다.

이 일에 협조하신 안은희 집사와 어려운 환경중에도 적극 동참하신 우리 6지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매번 봉사때 마다 느끼는 그 사랑과 친교의 기쁨이 지속되어 결속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행사(?)때마다 좋은 일기와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 주님 은총의 이 감격함을 어떻게 글로



▲ 국립의료원에 카세트라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표현할 수 있을런지...

이제 몸된 교회가 켜짐에 따라 "루디아"가 새로이 탄생되어 불가피하게 회원들이 나뉘어 집에 따라 헤어져야만 하는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주님의 뜻인줄 믿고 순종하며 마음을 달래어 본다.

얼마남지 않은 1989년 마무리 잘하는 우리 에스더 6지회를 바라면서.

제1회 충현 창작품 모음전

1. 사진 부문

작품내용-충현교회 예배당 건물을 주제로 한 흑백 또는 천연색 사진

작품규격-11×14 이상

유의사항-작품과 함께 필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목과 설명문도 첨부해야 함.

2. 전도지 부문

작품내용-직장, 학원, 병원, 교도소, 노방 전도시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글과 그림

작품규격-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크기

3. 카드 부문

작품내용-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일축하카드, 성탄카드, 연하장, 기타 엽서류

응모자격-충현교회 교인

접수마감-'89. 12. 3

심사발표-'89. 12. 10

전시기간-'89. 12. 17~12.31 상설전시장

접 수 처- 홍보부(선교관 206호)

전도위원회 문화부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1월 24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7과 꾸준한 성장

성경: 단 6:7-10

요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찬송: 399, 507장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히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과는 달리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조차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고도 끈기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가는 데 대한 기본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단 1:8).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상숭배의 제사음식을 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영을 더럽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온 포로로서 왕의 총애를 잃고 왕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이 위태롭게 될 것을 무릎쓰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단 1:8). 그는 되는데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에서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단호히 죄악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 가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다니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 비극적인 꿈의 해석도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부모하다고 하여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단 4:1-27). 다니엘은 벨사살왕에게도 똑같이 그 왕의 어리석음과 죄를 지적하고 메대바사의 승리를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단 5:24-31).

3.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30일동안 다리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꾸준한 성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 뒤에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생활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알아내야 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단 2:18). 또한 그는 혼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단 9장).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단 6장). 둘째는 말씀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 9:2에 보면 다리오원년에 예레미야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였습니다(단 9). 왕의 잔치를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2.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3. 나의 꾸준한 신앙성장에 있어서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좇게 하시며 하나님께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